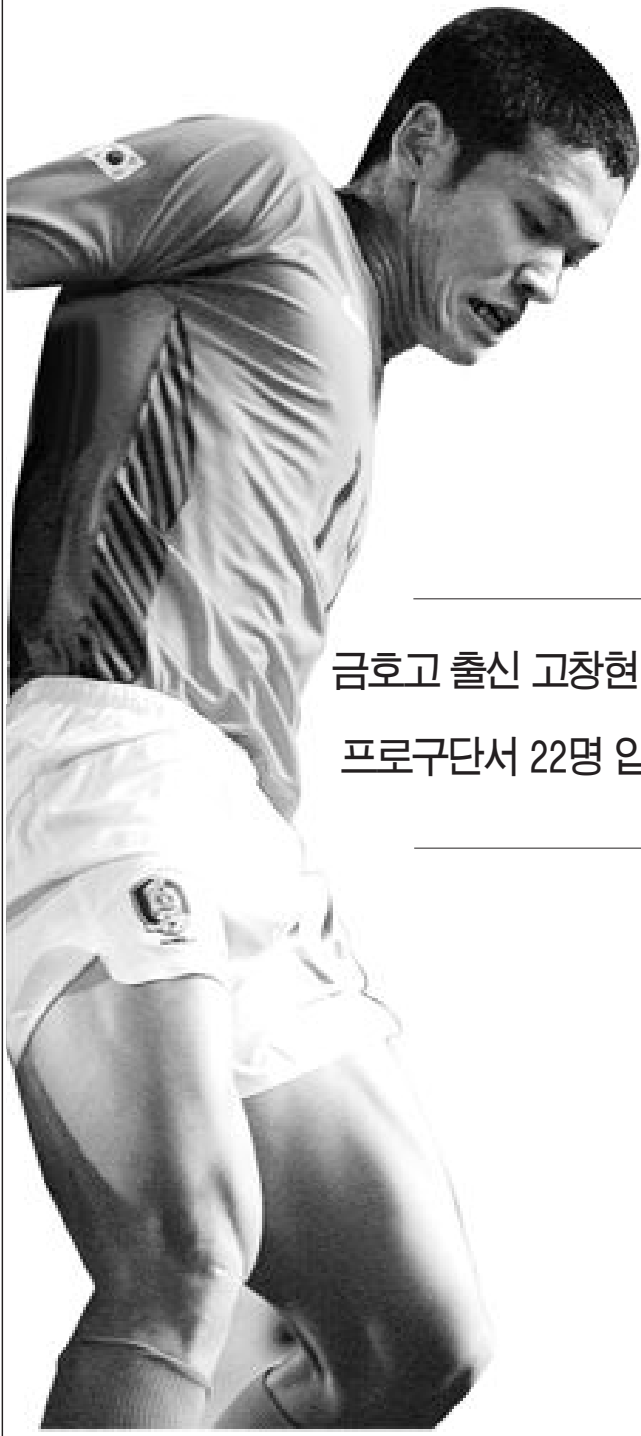


올림픽축구대표 김승용 “상무 입단 신고합니다”



금호고 출신 고창현 등
프로구단서 22명 입대

올 시즌을 최하위로 마감한 프로축구 광주 상무가 올림픽 대표 김승용(21·FC서울·사진) 등 주전급 선수들의 대거 입단으로 내년 시즌 큰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국군체육부대는 22일 “축구, 야구 등 모두 20개 종목에 걸쳐 153명의 ‘군 스포츠 자원’이 오는 27일부터 입대한다”고 밝혔다.

K-리그에 출전하는 광주 상무 소속으로 뛰게 될 축구팀에는 작년 네덜란드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주축 멤버로 뛴 김승용을 비롯해 2002년 한·일월드컵 직전 히딩크호의 연습생 출신인 여효진(23·서울), 프랑스 유학파 출신의 강진욱(20·제주), K-리그 75경기를 뛴 한태유(25·서울) 등 프로구단 소속 22명이 입대했다.

정경호 등 간판급 선수들의 만기 제대로 팀 전력의 손실이 우려됐던 광주 상무는 유망주들의 대거 입단으로 내년 시즌 중위권 이상의 성적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소속 구단별로는 수원과 제주가 각 5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4명, 부산 3명, 포항 2명, 대전, 전북, 울산이 1명씩이다.

광주의 내년 시즌 예상 포지션은 최전방에 남궁도, 이진호, 여승원, 김승용, 남익경이, 미드필드엔 김영근, 강용, 전광진, 이길훈, 고창현, 한태유가, 수비진에선 구경현, 마철준, 이동식, 이운섭 등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금호고 출신으로 고향땅을 다시 밟게된 고창현(부산)은 “군 복무를 고향 구단 소속으로 K-리그에서 다시 뛰게 돼 너무 기쁘다”며 입대 소감을 밝혔다.

이강조 광주 상무 감독은 “김승용 등 유망주들이 많이 들어와 내년에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신입선수들은 23일 국군 체육부대에서 예비 소집된 후 27일 논산훈련소에 입소, 내년 1월 5일 퇴소한다. 퇴소 후에는 광주 상무의 팀 훈련에 합류한다.

다음은 신입선수 명단.
김승용(FW), 박동석(GK), 여효진(DF), 한태유(MF·이상 서울), 박종천(GK), 박철형(DF), 마철준(DF), 강진욱(MF), 유현구(MF·이상 제주), 허재원(DF), 김운구(DF), 이길훈(MF), 백주현(MF), 차건명(DF·이상 수원), 이광현(DF·전북), 김백관(DF·울산), 이규철(DF·대전), 이수환(MF), 남익경(FW·이상 포항), 신수진(DF), 고창현(MF), 한설(MF·이상 부산).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공중부양?...앙리 헤딩슛

22일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2006~2007 UEFA 챔피언스리그 32강 G조 5차전 아스날FC-독일 함부르크 SV 경기에서 아스날의 티에리 앙리(오른쪽)가 헤딩을 시도하고 있다. 이 날 경기는 아스날이 3-1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맨U, 셀틱에 달미...16강행 불투명 UEFA 챔피언스리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박지성(25)의 소속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2006~200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스코틀랜드의 셀틱 FC에 달미를 잡혀 16강 진출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맨유는 22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셀틱파크에서 열린 대회 F조

조별리그 5차전 셀틱과 원정경기에서 후반 36분 일본 미드필더 나카무라 슌스케에게 결승골을 허용해 0-1로 졌다.

한 경기를 남겨놓은 셀틱은 3승2패(승점 9)로 맨유에 골득실 차에서 앞선 1위가 되면서 구단 사상 처음 이 대회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초반 3연승을 달렸던 맨유는 최근 2연패

에도 불구하고 2위를 지키고 있지만 다음 달 7일 승점 2밖에 뒤지지 않는 3위 벵카카(포르투갈)와 마지막 경기를 남겨뒀다.

맨유는 지난 시즌에도 벵카카에 발목을 잡혀 10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에 실패한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다.

H조의 AC 밀란(이탈리아)은 AEK 아테네(그리스)에 0-1로 졌지만 같은 조의 릴(프랑스)이 안데레흐트(벨기에)와 비긴 덕에 행운의 16강행을 확정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AG 최종 ‘모의고사’

베어백호, 두바이서 UAE와 평가전

아시아게임 축구 대표팀이 20년 만의 금메달 사냥을 앞두고 최종 모의고사를 치른다.

김 베어백 감독이 이끄는 아시아게임 대표팀은 23일 오후 11시15분(이하 한국시간) 두바이 알 자지라 클럽 구장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평가전을 갖는다.

이번 UAE전은 카타르 도하 임성을 앞두고 아시아게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며 결전 의지를 다지는 자리지만 결과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시아게임 및 올림픽 대표팀의 동시 가

동으로 어수선했던 팀 사정 때문이다.

15일 이란과 2007 아시안컵 예선 최종전을 치른 뒤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암선 코트비 코치, 코사 골키퍼 코치와 함께 두바이에서 전지훈련을 해 왔다.

1-1로 비긴 21일 일본과 올림픽대표팀간 평가전을 지휘한 베어백 감독과 홍명보 코치는 22일 일본에서 두바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UAE전에 가동할 수 인원은 아시아게임 멤버 20명 중 13명 뿐인데 21일 일본전에서 풀타임을 소화한 뒤 베어백 감독과 함께 두

바이로 향한 수비수 정인환(전북)마저도 출전은 힘들어 보인다.

K-리그 챔피언결정전 2차전을 앞둔 김두현(성남), 백지훈과 조원희(이상 수원)를 비롯해 러시아에서 뛰고 있는 김동진과 이호(이상 제니트), 김동현(루빈 카잔), 일본 J-리그에서 활약중인 김진규(이와타)는 소속팀 일정을 소화한 뒤 베어백호에 합류할 예정이다.

예비 골키퍼 1명을 빼면 UAE전에서 필드플레이어는 선발 출전 선수가 교체없이 90분 모두를 뛰어야 할 상황이다.

대표팀은 28일 오후 11시15분 방글라데시와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설기현 ‘주간 베스트 11’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호 골을 터트린 ‘스나이퍼’ 설기현(27·레딩 FC)이 처음으로 리그 공식 홈페이지가 뽑은 ‘주간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지난 19일(이하 한국시간) 찰튼 어슬레틱전에서 시즌 3호골을 터트리며 2-0 승리를 이끈 설기현을 ‘주간 베스트11(Team of the week)’로 선정했다.

설기현은 그동안 스카이스포츠 등 영국 언론이 선정한 주간 베스트11에는 뽑힌 적이 있지만 리그 홈페이지로부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설기현은 찰튼전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뛰었지만 이번 주간 베스트11에는 4-4-2 포메이션의 중앙 미드필더로 구분됐다.

설기현은 프리미어리그 선수랭킹인 ‘액티브 랭킹’에서도 지난주보다 10계단이나 상승한 27위로 뛰어올랐다.

한편 설기현은 이날 구단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팬들의 성원이 놀라움 기만 하다. 지난해 올버햄프턴 소속으로 레딩과 원정 경기를 치를 때는 이 같은 응원을 듣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정말 환상적”이라며 홈 팬들의 지지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박진표기자 lucky@



23일(목)

- ▲그랜드슬램골프(08:00·MBC ESPN)
-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여자부: 올드스타)(14:00·MBC ESPN)
- ▲프로농구(KTF·동부)(18:50·Xports, SBS스포츠)
- ▲축구 아시안게임 대표팀 평가전(한국-UAE)(23:05·KBC)

24일(금)

- ▲UEFA컵 축구(레버쿠젠-토트넘)(04:20·KBSN SPORTS)

교육기 시대의 필수품!!
초절전형, 고효율 오일식·전기식 월빙 난로

35~75%의 난방 열효율

국내유일 정부조달형 납품

난방비 절약 NO!!
그림을 보며 NO NO!!

간단易懂한 설치방법

062-431-4312
062-431-4314

그녀는 **성** 토끼를 좋아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녀를 만나기 위해

060-333-3292

고개숙인 男性...
“**히세**”
남자로!!

080-333-3293